데스크시각

정 후 식

히말라야가 녹아내리면

히말라야(Himalaya)의 말밑(語源)은 '눈의 거처'라는 뜻의 고대 산스크리트어다. '눈(雪)'을 뜻하는 히마(hima)와 '처소'라는 의미의 알라야(alaya)를 합쳐 만든 복합어다. 산악인들이 평생 한 번쯤은 그 자락에 발을 디뎌보기를, 먼발치에서라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세계의 지붕'이다.

'아시아의 물탱크' 히말라야

그 지붕을 덮고 있는 것은 해마다 내린 눈이 다 녹지 않아 켜켜이 쌓인 만년설이다. 억겁의 세월 엄청난 두께로 다져진 눈덩이의 하층은 압력을 받아 얼음 알갱이로 변하고 중력에 의해 산 아래로 느리게 이동을 시작한다.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막혀 더 이상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면 만년설은 빙하(氷河)로 탈바꿈한다.

'얼음의 강' 빙하는 새로 유입되는 눈과 기온의 영향으로 진퇴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산악 빙하는 한 해 많게는 수백m, 적게는 불과 몇m씩 이동한다. 산 아래 다다르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한다.

남극과 북극에 이어 '제3의 극지'로 일컬어지는 히말라야에는 장대한 산악 빙하가 많다. 파키스탄 카라코람산군에 위치한 K2와 브로드피크, 가셔브룸 I·II봉은 모두 발토로 빙하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이웃에는 세계 최장(75㎞)의 시아첸 빙하가 위치해 있다.

만년설과 빙하의 고향인 히말라야가 요즘 심상치 않다. 등반 시즌부터가 그렇다. 예전엔 봄·여름이 적기였지만 최근엔 겨울 초입까지 원정대가 북적거린다. 올 가을 안나푸르나에는 한국원정대만 4개팀이 몰리기도 했다.

8,000m급 거봉 곳곳의 만년설이 녹아내린 자리엔 바위들이 노출돼 등반가들을 위협한다. 에베레스트 등정의 마지막 관문인 '힐러리 스텝'암벽지대는 2배 이상 넓어졌고, 사우스콜에서 정상 가는 길은 절반이 바위길로 변했다는 전언이다. 낙석도 잦아지고 있다. '하얀 산'을 찾은 산악인들은 이제 설상 등반보다 암벽타기에 더 신경을 써야할 지경이다.

만년설이 쌓일 수 있는 하한선인 설선(雪線)의 고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히말라야산맥의 설선이 매년 10~15m씩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빙하의 해빙 속도도 급격히 빨라져 쿰부빙하는 고(故) 에드먼드 힐러리경이 에베레스트를 초등(1953년)했을 때보다 5㎞나 후퇴했다고 한다. IPCC(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히말라야의 빙하가 오는 2035년을 전후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빙하 녹은 물이 흘러내려 호수들은 범람하고 산악도로조차 물에 잠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모든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이 지구온난화다. 급기야 네팔 정부는 지난 4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히말라야 보호에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이른바 '에베레스트 선언'이다.

기후 난민 2050년 10억명

'아시아의 물탱크'인 히말라야의 눈과 얼음이 고갈될 경우 수자원 부족은 물론 농작물 작황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재앙은 지역간, 국가간 분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크다. 국제이주기구(IOM)는 2050년께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이 2천500만명에서 최대 10억명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지구촌의 눈길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쏠려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의 주장처럼 이번 회의가 지구를 구할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제2의 지구, 제2의 히말라야는 없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후 난민' 신세로 전락해 있을지도 모른다. 녹아내리는 히말라야 만년설의 경고를 깊이 새겨야하는 이유다.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서 미 정

성년후견인제 도입을 희망한다

지적·정신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을 만나게 되면 듣게 되는 말 중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곁에서 보살펴 줄 수 있는데 내가 죽고나면 저 아이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라면서 사후에 남겨질 장애 자녀들의 삶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염려하는 소리를 듣는다.

언론매체를 통해 장애인권침해에 대한 보도를 접하는 날은 이런 걱정이 더 앞선다고 한다. 부모 사후 장애 자녀들의 삶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에 걱정이 앞선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광주 장애인권센터에도 최근 들어 지적·정신장애를 이용한 사기피해의 상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례 하나. 지적장애인 남성인 OO군은 친구의 꾀임에 빠져 제3금융권에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였고, 대출이 손쉽게 이뤄지자 여러 군데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친구의 유흥비로 쓰고 기관으로부터 독촉이 오자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는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OO군을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신청한 상태임.

사례 둘. 정신장애여성인 OO양은 교제 중이던 남성으로부터 OO양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군데 핸드폰 회사를 옮겨다니며 값비싼 핸드폰을 구입. 핸드폰 요금은 체납하였고, 또한 OO양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받아 그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결국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보호자에게 떠넘겨진 상태이다.

지적·정신장애인은 사람을 쉽게 신뢰하고, 타인의 동기 및 상황 판단할 능력이 떨어지고, 장래의 위험을 예지할 능력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인 대응책이나 방어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결성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인, 치매나 중풍 등 스스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민법개정안의 국회 입법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현행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재산권, 참정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행위를 박탈하고 행위무능력자로 낙인찍는 제도다. 이는 반인권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 수년 전부터 성년후견제의 문제를 개선하여 지적·정신장애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부모님들의 한숨과 오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의 가치가 입법 기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입법자가 얼마나 많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신적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를 바로 알리고 그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훌륭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안 기 석

광주·대구가 상생해야 하는 이유

지난 10월 18일 대구시 서구구민운동장에서 대구·경북호남향우회 주최로 영호남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여느 대회처럼 각 지부별로 기를 앞세워 향우들이 입장하고 호남향우가가 불려졌으며 대회사가 있었다.

그 중에서 향우가의 "드넓은 호남평야 대지의 숨결이며 고향의 이름아래 이곳에 뿌리내린 보아라 향우들아 우리의 저력을"이라는 가사와 고동순 대구·경북호남향우회장의 대회사 "어떠한 이유나 역사적 배경에서든 영호남의 상호정서가 부합되기 어려운 문화가 일부 존재하여 때로는 갈등을 겪었던 날들도 우리는 그 중심에 서서 아픔을 체험하면서 치유하려는 노력을 남모르게 해왔다."는 대목이 가슴을 저리게 했다.

이어지는 대회사 "우리의 제2고향인 대구·경북도 힘찬 도약을 약속 받고 있으며 친정인 고향 호남도 풍요로운 옛 명성을 약속하고 있다.

넉넉하고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양 지역이 함께 손잡고 웃음이 전염되는 발전에 동참하자!"라는 호소력 있는 말씀에 단상 한곳에 서 있는 나는 왠지 눈시울이 붉어져서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으로 도시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단위로서의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약화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미래의 지역성장 동력창출을 토대로 한 지역발전전략으로 지방정부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간 경쟁 속에서 협력하고, 협력속에서 윈윈(win-win)을 꾀하는 것이 21세기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달구벌-빛고을 윈윈동맹(달빛동맹)"이 지방정부간 상생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광주시와 대구시는 내륙도시로서 16개 시·도 가운데 지역내총생산(GRDP) 등 수도권과 해안도시에 비해 경제기반이 취약한 상태여서 주요 국책사업의 지역유치에 있어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양 지역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간 정책공조로 경제블록을 구축하여 상생의 나래를 펴고 있다. 양 도시는 끈끈한 정책공조로 돔구장 건설, 국립과학관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일궈내고 있다. 또한, 양 지역은 정책연대를 통해 지역간 시너지형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광주-대구시 공동의 "도시형 첨단과학기술벨트"와 광주·전남·울산·경남을 잇는 "남부 내륙녹색성장 벨트"에 대한 초광역개발권 전략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21세기는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국경없는 도시 간 무한경쟁 시대이다. 지금 세계는 "중국이냐, 미국이냐"라는 국가간 경쟁보다는 "북경이냐, 워싱턴이냐"라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도시간에 끝없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간 협력과 상생방안 모색은 도시발전의 새로운 대안이며 윈윈전략으로 우리 광주를 첨단산업 문화수도가 중심이 되는 "1등 광주건설"로 우뚝 서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광주시 자치행정과장〉

사 설

국민적 붐 조성 시급한 'F1 대회'

국내 최초로 영암에서 열리는 포뮬러원(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준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대회 일정이 확정됐고 조직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는 지난 11일 모나코에서 총회를 열고 '2010년 F1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F1코리아그랑프리'는 영암군 삼호읍 경주장에서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에 걸쳐 치러진다.

F1대회를 이끌 조직위원회도 15일 본격 출범했다. 조직위 위원에는 정·재계 인사 115명이 선임됐으며 부위원장 4명과 집행위원 11명도 뽑았다. 전남도민의 숙원인 F1대회 준비가 드디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F1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F1 대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고 있으나 국민들의 인식은 바닥 수준이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붐 조성에 나서야 한다.

F1 대회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에 과시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향상 효과 등 무형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당연히 국가 차원의 행사로 치러져야 한다. 그러나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이 미뤄진데다 부위원장과 집행위원이 전남지역 인사들 위주로 채워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조직위 구성을 계기로 대회 준비와 운영을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

교통과 숙박 대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회기간 동안 14만여명이 방문하게 되며 6만5천개의 객실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회가 열리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완벽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의 역량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美少금융' 서민 자활 버팀목 돼야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름다운 소액대출이란 뜻의 '미소(美少)금융'이 지난 14일 삼성그룹의 수원지점을 시작으로 닻을 올렸다. 17일엔 국민·신한·우리은행이 각각 대전·인천·서울지점을 내는 등 순차적으로 전국 300곳에 문을 열어 최대 25만명이 금융 혜택을 볼 전망이다.

미소금융은 급전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금융 소외계층에게 500만~1천만원을 신용대출해주는 제도로 서민들에게는 분명 가뭄의 단비다. 사회연대은행 등 민간 마이크로 크레디트와 달리 정부 주도로 대기업과 금융권 등에서 10년 동안 2조원을 출연,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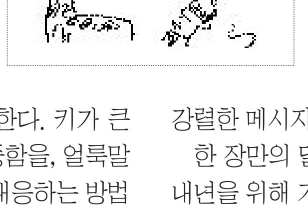
하지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미소금융이 과연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저신용자가 80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2조원 정도의 자금으로 지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단계적인 재원 확충 대책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또한 미소금융은 정부가 주도하고 재단이 운영하는 민관 혼합방식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나서 돈 걷고 재단부터 만들어 당장 돈을 쓸모 있게 굴릴 전문가가 태부족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자칫 사후 관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소금융에선 대출기준과 채권추심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등 제도적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덕적 해이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미소금융이 서민 자활 지원 대책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출기준과 채권회수 방법 등 정교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형 미소금융이 소외계층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

無 等 鼓

세렝게티 전략



최근 미국 비즈니스 전략전문가인 스티븐 베리의 '세렝게티 전략'을 읽은 적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신혼여행지로 처음 방문했던 세렝게티의 매력에 빠진 이후 수차례 그곳을 방문, 많은 동물과 그들의 생존전략을 현대의 비즈니스에 접목한 역저로 평가될 만하다.

세렝게티(Serengeti)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서부에서 케냐 남서부에 걸친 3만㎢의 초원으로, 수백 종의 동물들이 공생하는 삶의 무대다. 다큐물 '동물의 왕국'을 통해 TV 시청자들에게 '약육강식'이라는 고정된 시각을 심어준 배경이기도 하다.

저자는 책을 통해 '세렝게티 전략가'들의 생존비법을 생생히 전한다. 키가 큰 기린으로부터 비전의 소중함을, 얼룩말에게서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말한다. 또 협력사냥을 하는 사자, 시장을 선점하는 치타, 공격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타조의 전략도 꽤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늘날 부를 이룬 존 펨버튼의 코카콜라나, 커넬 샌더스의 켄터키 프라이드치킨을 말하면서 코뿔소의 '돌격' 전략을 든다. 남들이라면 멈췄을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 결국 성공했다는 얘기다.

특히 저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달달 외우느라 허비했던 학창시절에 차라리 얼룩말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더라면 더 강한 생존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이 책은 현대라는 정글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지구의 탄생 이후 동물들이 보여준 삶을 통해 생존의 지혜와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한 장만의 달력이 남은 올해, 더 나은 내년을 위해 기업인들은 또 절치부심할 게 분명하다.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은 대학 새내기들도 마찬가지다. 한번쯤 '세렝게티 전략'을 읽어보기를 권장하고 싶다.

/이종태 사회2부장 jtlee@kwangju.co.kr

긴급차량 출동에도 양보없는 운전문화 아쉬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소화전 주위의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시 소화전 사용을 못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취명하고 출동하는데 비켜주지 않는 얌체행위는 우리 교통문화를 어둡게 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구급차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밤낮 없이 위급한 환자들을 구호하다보니 출동빈도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사고의 60% 이상이 다른 차량의 양보가 절대 필요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구급차의 사고는 물적 피해를 넘어 위급한 환자를 더욱더 위험에 빠트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이다. 우리 모두 구급차 또는 긴급출동 차량을 만나면 양보하는 성숙한 운전문화가 지켜지길 기대해 본다.

▲곽기석·동부소방서 지산119안전센터

농촌 팜스테이 명칭 제각각…일원화 했으면

방학이면 학부모들이 많이 찾는 팜스테이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게 있다.

한번은 친구가 팜스테이를 갈려고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그 이름이 워낙 많아서 어떤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확한 정보를 원했다. 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확인해 봤더니 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팜스테이, 농어촌마을 등 셀 수없이 많았다.

기능은 비슷비슷하지만 각기 마을 이름·담당 부서·기관이 다르고 휴가철이 다가오면 관광홍보도 따로다 보니 팜스테이를 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조차도 자칫 속는 느낌이 들어 꺼려진다고 한다.

이제 팜스테이는 농-도간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용어부터 통일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농촌체험'이라는 용어로 정했다면 우리나라 모든 농촌의 팜스테이는 농촌체험 하나로 통일하되 다만 지역적 특성이나 행사의 특징만 따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한다. 그러면 팜스테이를 가고자 하는 도시인도 편하고 농촌을 찾는 횟수도 많아지니 더 좋을듯하다.

▲유일숙·광주시 동구 수기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